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승룡 사회복지사 / 고대안암병원 의료사회사업팀



1970년대 1%에도 못 미쳤던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의 원인들로 인해 9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젠 5~6% 수준인 서구 선진국을 훨씬 앞지르게 됐다고 한다. 그 결과 최근 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환자일 것으로 추산되며, 60대 이상은 2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라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1992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7위에서 2002년에는 4위로 꺾충 뛰어올랐다고 한다.

당뇨병은 아직 완치가 어려워,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한 환자와 환자가족의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질병이다.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다양한 심리적·가족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여러 증상은 만성합병증을 쉽게 초래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당뇨병은 자체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합병증 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당뇨병은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정하고 부족하나마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정보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듯해 본 글에서는 당뇨인 및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국가와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유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당뇨병환자의 경우 혈당조절을 위한 입원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인해 발생비용 또한 크지 않다. 그러나 외부후원기관 연결 시 결정통지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비교적 결정소요시간이 짧고, 발생비용 자체를 줄여주는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난,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게 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007년도 가구규모별·지역별 최저생계비 및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소득인정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대상자(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2007년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신청방법은 급여신청서(동사무소비치), 전월세계약서, 소득확인자료 등을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 의료보호 및 의료특례 제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의료보호 및 의료특례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의료보호제도

- 의료보호 1종 : 급여부분 100%지원
- 의료보호 2종 : 급여부분 80% 지원(단, 의료보호 2종이면서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의료보호 1종과 동일하게 급여부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특례제도 : 일반적으로 의료보호제도는 주로 절대극빈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절대극빈자는 아니지만 저소득가정에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호 특례'를 통해 환자만 정부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일).

▲ 200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007년부터 대상 질환 군이 98종으로 확대되며 782억4,836만원(국고보조금+지방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뇨병과 관련된 만성신부전 등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선정되어 있다.

▲ 당뇨병병증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서비스

당뇨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합병증의 종류에 따라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데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신장질환의 경우 투석치료를 1개월 이상을 받으면 장애 2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5급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망막의 이상으로 인한 안질환에 따라 검사를 통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의 경우 절단부위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 당뇨병 돌보기 Ⅱ

- 장애인 등록절차

-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
- 읍면동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읍면동사무소에서 검토
-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 혜택

- 저소득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및 의무고용제 적용
- 소정의 자격요건 해당 시 의료비(건강보험료 감면, 의료비·보장구 지원), 교육비, 생계비 지원(장애연금 혹은 장애수당 지원)
-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요금 50%할인
- 지하철·전철요금 무료,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 시내전화통화료 50%할인(20세 이상 세대주)
- 소정 요건 충족 시 차량구입 후 세제혜택 및 LPG사용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공여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공원 무료입장
-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추가 공제
-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적용 및 구입비 지원

민간지원 사회복지서비스

▲ 민간 사회복지단체 의료비 지원

상기 정부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원치료비 마련이 어려울 경우 병원 의료 사회복지사의 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자체의 불우환자후원회 또는 외부지원단체에 지원신청해 치료비를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급식 및 가정도우미 서비스

당뇨병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밀반찬이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지 주변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가정간호서비스 및 무료간병인 이용

가정간호서비스는 퇴원 후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절차는 각 병원의 가정간호서비스팀에 요청하면 되고 병원에 가정간호서비스팀이 없을 경우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입원 치료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 사회사업팀(실)이나 거주지의 자활후견기관에 무료간병인을 신청하면 소정의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각 병원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병원의 사회사업실(팀)에서는 경제적 자원 외에 각 환자에게 맞는 정보,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뇨병은 발병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특히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생활환경에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를 야기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가족 및 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초기 발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하루의 시간을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상담신청은 주치의의 통해 의뢰를 받아 이용 가능하다. 